

광주 동구·북구, 여수 경계조정이 관건

정개특위 활동 시작...광주·전남·전북 선거구 조정 어떻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18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서 선거구 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구 개편을 정개특위에서 할지 외부 기관에 맡길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말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의원 정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다양한 변수까지 있어 선거구 개편의 방향은 쉽게 짐작하기 힘든 상황이다.

현재의 결정대로 현행 최다선거구와 최소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대1'인 것을 '2대1'로 축소할 경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62개다. 이중 광주는 2곳, 전남은 4곳, 전북은 6곳이 해당된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대1로 인구편차가 변경되면 선거구별 하한 인구와 상한 인구는 각각 13만8984명, 27만7966명으로 바뀌는데 이 상·하한을 벗어난 지역으로 잠정적인 조정 대상이다.

여기에 선거구가 바뀌면 인근 지역구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정 대상 선거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상한 인구 초과 선거구는 북구(29만4355명),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동구(10만1656명)다.

따라서 인구기준으로만 보면 북구들은 분구가 가능하고, 동구는 인근 지역구로 통합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는 하지만, 북구들의 경우 북구 갑 선거구 포함 전체 인구가 44만8779명인 점을 감안할 때 북구의 갑을 상한 27만명 미만에서 경계조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동구는 인구 하한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적인 선거구 존립이 불가능해 인근 선거구로 흡수될 경우 광주의 국회의원 수는 현 8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역 정치권과 광주시에서는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국회의 정개특위에 앞서 지난달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광주시에 요청해 놓은 상태며, 광주 시의원들도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남=상한 인구 초과 선거구는 순천시·곡성군(30만8182명)이고,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여수시갑(12만5657명), 고흥군·보성군(11만5800명), 무안군·신안군(12만5488명) 등 3곳이다. 순천시·곡성군 선거구는 분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 3곳은 선거구 개편으로 사라질 수 있는 선거구다.

의석 늘어날 가능성 없고

인구기준 4~8석 사라질 수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변수도

때문에 이들 선거구에 인접해 있는 시군도 자연스럽게 선거구 개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여수시갑 선거구의 경우 여수시 전체 인구 29만534명을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하다.

◇전북=상한 인구 초과 선거구는 전주 시덕진구(28만7653명), 군산시(27만8119명) 등 2곳이다. 이들 지역구는 분구가 가능한 것이다. 또 하한 인구 미달 선거구는 무주군·진안군·장수군·임실군(10만5122명), 남원시·순창군(11만5442명), 고창군·부안군(11만7757명), 정읍시(11만7524명) 등 4곳이다. 없어질 지역구로 인근 시군과 재편이 불가피하다. 전북의 시군구가 14곳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군구가 선거구 개편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다. 다만 전주 시덕진구의 경우 65만2457명인 전주시 전체 인구를 감안할 때 경계조정으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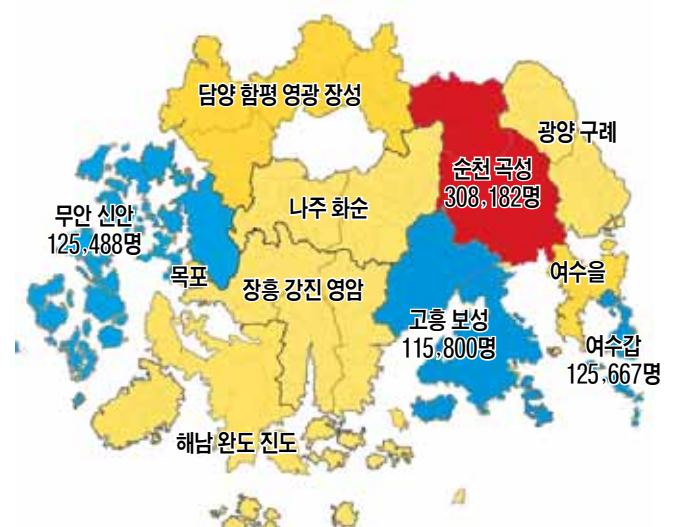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 조정대상 선거구 (2곳)

■ 초과 선거구 * 선거구 인구 기준 -상한 277,966명
■ 미달 선거구 -하한 138,984명
(2014년 9월말 인구수 기준)



■ 전남 조정대상 선거구 (4곳)



정개특위 야당 간사 김태년 의원 “선거구 획정 외부에 맡겨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야당 측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다른 정치제도 개선 논의는 진전이 더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개특위 위원장이 선거구 획정을 독립기구에 맡길지를 특

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선거구 획정 주체 문제는 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선거구 획정은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구 획정에 개입한다면 공정성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가능한 한 이르게 선거구 획정을 외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에 이해관계가 걸린 농·어

촌 지역 의원들이 정개특위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에는 “그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듣고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를 두고서는 “의석 수가 핵심이 아니다”라며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 여부를 선제적으로 논의하되 이 과정에 의석수가 장애가 된다면 그때 (의석수 조정을) 논의해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탄력 받은 공무원 연금 개혁...소득재분배 쟁점 부상

국민대타협기구 분과위 회의

당정 하후상박 재분배 추진

공무원노조 “소득비례 유지”

정와대 3차 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18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재정추계 분과위가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본격적 논의에 들어갔다.

분과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단계로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을 놓고 검증에 나섰다. 하지만, 연금 총액 산정 방식 등 쟁점사항에 대해 정부와 공무원단체 간의 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열고 재정추계모형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와 정부·노조는 재정추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구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

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나 소득재분배 방식 도입을 놓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어 치열한 논리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무원 직급간 '부의 편중 심화'를 우려하며 강력한 소득재분배 방식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득재분배는 '하후상박(下厚上薄)'의 개념으로 소득이 적으면 덜 내고 더 받게, 소득이 높은 계층은 그 반대로 만들어 수급자 간 연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소득재분배가 안 되면 새누리당안을 기준으로 9급은 월 7만원 손해, 5급은 월 11만원 이득”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소득재분배 안은 'A급(최근 3년간 전체 공무원 평균보수)의 2분의1과 B급(본인 재직기간 평균보수)의 2분의1'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B급'만으로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연금액을 산출하는 현행 방식보다 하위직은 연금을 더 받고, 고위직은 연금을 덜 받는다.

반면, 공무원노조 측은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연금 방식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 지급률 하향 조정은 일정 부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구조개혁의 주요 사안인 소득재분배에 대해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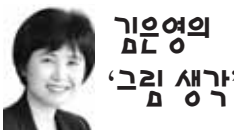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김성광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특수지역(공무원)은 소득비례연금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욱 회장도 “소득재분배 부분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재분배 방식이 가미된 '모수개혁 같은 구조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여·야·정·노간 접점이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전날 연금개혁분과 비공개회의에서 “구조개혁이면서도 모수개혁 같은 수정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신의 섭리인가, 장엄한 빛의 향연



(107) 노트르담 드 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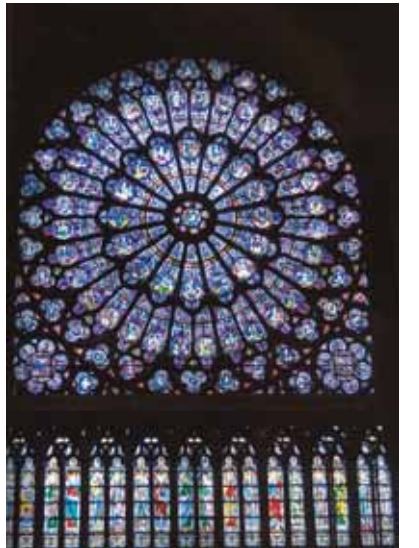
좋은 곳을 여행하고 왔거나, 감동의 여운이 짙은 공연을 감상하고 나면 한 동안 그 감흥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며칠이고 되새기게 되는 그 감동은 때로 고달픈 나날을 견뎌내는 영혼의 비상식량이 되기도 한다.

지난 주말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공연을 다녀와서 새삼 노트르담 위고의 원작을 뒤적여보기도 하고 OST를 반복해 들으면서 시간의 검증 통과한 고전의 위대함을 절감해본다. 15세기 노트르담 대성당을 중심으로 펼쳐졌던 거대한 서사인 이 뮤지컬은 특히 한 여인을 둘러싼 종지극 짙은 과자모도마

신부 프롤로 주교, 근위대장 페뤼스의 헌신과 욕망, 집착이 어우러진 삼색의 숙명적인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사랑의 의미를 진지하게 묻고 있는 듯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빅토르 위고의 문학 덕분인지 파리를 여행하면 꼭 들러보는 곳. 하늘 끝에 닿고 싶은 인간의 지가 높은 첨탑을 세웠고, 고딕 건축 양식 구조상 거대한 창을 달 수 있게 되자 아름답고 정교한 스테인드글라스가 등장하게 된다. '장미의 창'이라 불리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는 아름답고 정교하기로 유명하다. 장미의 창은 꽃잎들이 하나씩 펼쳐진 다음 한 가운데의 알출이 태양을 향하는 구조로 이는 사랑, 지혜 탐구의 단계를 넘어 신의 신비에 대한 명상의 단계로 나아가감을 상징한다고 한다.

오래 전 노트르담 성당을 들렀을 때가 생각난다. 엄청난 규모의 성당 안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사소하고 하찮게 느껴



'장미의 창'

졌던지, 색색의 유리를 통과하는 장엄한 빛 속에서 전율했다. 신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바로 여기라는 생각이 들만 치. 뮤지컬에서 '무지개처럼 치마를 휘 날리며' 춤추던 이방인 에스메랄다가 성당에 들어서면서 '아베마리아'를 부르며 처음으로 기도했던 경건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